

“근로자의 건강문제는 영문 전문기관의 고도의 기술, 학

새해를 맞이하여 근로자 건강증진에 전력하여 오신 회원 여러분과 정부관계자, 그리고 어려운 시련속에서 국가경제발전에 헌신하여 오신 기업인과 근로자 여러분께 삼가 새해 인사를 드리며, 지난해 여러분께서 베풀어 주신 지원과 협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는 2000년대를 바라보며 각 분야마다 새로운 기대와 각오로 출발했던 해였습니다만 국내·외적으로 예상치 못했던 많은 변화와 진통이 한꺼번에 맞물리는 소용돌이 속에서 자기모습을 찾지 못하고 해매는 분주한 한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 산업보건분야는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갈증 해소의 차원을 넘어 감로수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기 위해 여러면에서 개혁과 개선을 추진하여온 매우 뜻깊고 결실있는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각종 직업병으로 인한 노사간의 갈등과 사회적 우려도 심상치 않게 제기되어 산업사회의 필연적인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만 이를 발전과 연구의 계기로 삼아 이 분야에 대한 분발의 촉진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할 때 결코 걱정스러운 것만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법령과 제도면에서 그동안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는 내용을 과감히 개정하여 근원적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건강권에 대한 근로자들의 참여 기회 확대, 사업장 보건관리 체제 강화, 보건관리 대행의 확대 적용, 재해 예방 기금의 확보, 근로자 건강관리 및 교육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 강화 등 강력하면서도 효율적인 시책이 마련된 것은 산업보건사에 평가 받을만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우리 협회는 지금까지 추진하여오던 전문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여러가지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여 왔습니다.

전국 사업장 및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각종 통계처리와 질병 유소견자의 개인별 관리가 가능하도록 전산 시스템을 확대보강 하였고, 최근 문제되고 있는 각종 직업병에 대한 예방대책 및 세미나 개최는 물론 관련 홍보팸플렛을 제작하여 근로자 교육홍보용으로 배포 하는 등 일련의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면서 근로자 보건교육을 위한 시청각 교재도 개발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사업장 보건관리자인 산업간호사들의 활동을 강화하기위해 WHO의 도움을 받아 당 협회가 지원하여 산업간호학회의 창립을 보게된 것은 더욱 뜻깊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산업의학회를 비롯하여 산업위생학회, 산업간호학회가 각각 우리나라 산업보건분야별 이론적 개발과 학문적 뒷받침을 맡게되어 가일층 발전되리라 기대됩니다.

그러나 산업사회에 있어서 근로자의 건강문제는 영원한 과제로서 이를 책임받고 있는

제로서 이를 책임맡고 있는 사명감 등 총체적 노력이 요구”



회장 조규상

전문기관의 고도의 기술, 학식 및 사명감 등 총체적 노력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제 1991년 신미년 새날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내외의 어려운 여건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산업보건의 기본적 목표를 향해 지금까지 쌓아온 학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몇가지 사업에 역점을 두어 꾸준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주 참여하에 보건관리자 중심의 산업보건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근로자의 건강증진은 지금까지의 연례적인 건강진단 방법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건강관리 체제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도를 높이고 당해 사업장의 보건관리자가 책임지고 근로자에 대한 건강과 작업환경 관리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별도의 보건관리자를 두기 어려운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건관리 대행 제도를 활용하여 전문기관에 의한 관리 방법을 확대하여 영세사업장에 이르기까지 산업보건의 효과적 정착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둘째, 근로자의 건강증진과 직업병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사업과 교육홍보활동을 강화할 것입니다. 조사연구사업은, 더욱 활성화하여 제도 개선 및 정책개발, 건강진단 방법, 직업병 연구, 근로자 건강증진 등 분야 별로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직업병 예방을 위한 홍보 책자를 유해인자별로 계속 발간 보급하여 예방의식을 고취시키는 한편, 근로자 보건 교육을 위한 각종 시청각 교재를 만들어 산업현장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셋째, 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의 정도 관리를 위하여는 모든 기관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한사람의 건강상태를 판정하고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평가하는데는 분석과 관찰이 정확하여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검진 및 측정기관들이 신뢰성을 의심받는 경우도 있어 정도관리 문제가 무엇보다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더욱이 판정이나 평가에 따라 노사간의 이해와 의견이 첨예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들의 수준향상을 위한 노력은 결국 각 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전문교육을 통해 자질을 높이는 것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직종별로 적합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아울러 기관별 분석능력을 분류하여 지도 및 분진지원 사업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장기적 계획으로는 지역별 분석기관의 공동활용 문제도 적극 검토하여 공동의 노력으로 해결해 가자 합니다.

이상과 같은 우리의 노력은 한국의 산업보건 사업을 한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여 금년 한해도 협회 임직원 여러분의 분발과 회원제위 및 관계 인사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 아침